



꽃꽃이회 회장(前)의 회원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합창단 불음(佛音)이 헌 마음으로 산불가를 부르고 있다.



“왜 하나구요? 그냥, 국악이 좋아서요” 어린이 사물놀이패 정봉(正奉)의 상의 지향의 양이 판소리 독창을 하고 있다.



성인 사물놀이패 국봉(國峯) 풍물 공연 신명나게 경기 윷따리 장단을 선보이고 있다.

‘덩더쿵’ ‘얼쭈’... “법당이 문화공연장 됐어요”

“그 재, 심 봉사. 맹인 잔치하려 황성 올라가는 길에 있는디... 얼쭈” 구성지게 풀어놓는 심청가 한 대목, 손끝으로 뿌려지는 발림, 제법이다. 고수의 추임새가 흥을 돋운다. 어린이 사물놀이패 상의 황희(13·남산산초5의 관소리 공연, 등장한 법당을 압도한다.

합창단 불음(佛音), 다도회 선향(善香), 꽃꽃이회 화정(和正), 사물놀이패 국봉(國峯)과 정봉(正奉), 사진동아리 소명(尙明), 그리고 고전무용단 백조(白鳥), 언뜻 들으면 전문 문화예술 공연단의 이름만 같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부터 화성사 신도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문화 동아리들. 초등학생부터 일흔 살이 넘은 어르신까지, 전체 회원만 200여명이 넘는다. 직계는 일주일에 한번, 당게는 매일 모여 출사와와 사물놀이, 노래소리 등을 맞춰 보았다.

드디어 오늘엔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발군의 실력을 뽐내는 축제 날 3일, 다도 시연에는 엄마들이 나서고, 사물놀이 공연에 아들, 딸들이, 아빠들은 사진 작품을 내놓았다. 온 가족이 공연을 하고 관람도 하는 문화예술 향연, 까르르 웃어대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법당을 훈훈한 사랑방으로 바꿔놓는다.

사실 합창단이나 꽃꽃이회 등 문화모임을 하나만이라도 갖는 있는 사람조차 드문 현실에서 이처럼 문화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는 화성사가 주목을 받게 된 것. 화성사의 문화 동아리 활동은 신도들의 신행 패턴과 사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정기법회나 기도에만 치중했던 신도들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절에 오는 재미가 솟출하고 신행생활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 것은 물론, 더욱 풍성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또 사찰 일에 소극적이었던 거사회 회원들까지도 사진, 사물놀이 등에 동참하는가 하면, 아이들 또한 절을 ‘놀이터’로 여길 정도로 질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특히 컴퓨터에만 열중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던 아이들이 사물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에 눈떠가고, 더불어 살아

가을을 지나면서 신시마다 문화행사가 풍성히 열렸다.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사생대회 등 사찰에서 열린 각종 문화행사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연장이요 전시관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사찰의 새롭게 변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사찰중에서 신도들이 지발적으로 7

가는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된 점도 화성사 신도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연 2시간 전, 밤 9시부터 이들 동아리의 야단법석은 시작됐다. 연신 쏟아내는 사물놀이의 웅과

리와 징, 장구, 북소리 장단, 군고구마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주전부리하는 중들 때 아이들부터 시연에 쓰일 다구를 꼼꼼히 챙기는 한복차림의 보살들, 흐트러질새라 꽃꽂이 작품을 조심스레 나르는 거사들까지, 공연에 신이 나있다.

“처음에는 ‘아빠다리(가부좌)’ 하고 법회

“도심에 있는 사찰은 문화 복지 도량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찰에서 주는 식의 일방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노력봉사 위주의 복지활동에서 벗어나야 신도들이 참여 오길 즐거워 합니다. 문화와 복지가 만나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포교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남 화성사 주지 시용스님

“처음에는 신도들의 반대가 있었지요. 절에서 시골법사한 게 뭐가 필요하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

화성사 7개 신도동아리 문화예술 축제의 현장



동글게 둘러앉은 화성사신도들이 다도회 선향(善香)이 우려낸 차를 마시며 아이기꽃을 피우고 있다.

‘신행·문화 포교’ 일거양득...가족간 애깃거리도 늘어

보려면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장구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는 재가 먼저 절에 가고 때를 써요. 컴퓨터 게임도 좋지만 사물

놀이가 더 좋아요. 볼아치는 휘모리장단이 재밌어요.” 장구를 배운 지 5개월 됐다는 병훈(11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주최한 다도발표회에서 들차회 시연회에도 동참했다. “들떠 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

개와 문화 동아리를 활발히 운영하면서 볼 가을로 발표회까지 열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결코 유명하다고 할 수 없는 작은 사찰 성남 화성사. 그러나 거거연 세 시대의 문화코드가 가을 들녘에 핀 구절초처럼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3일 200여 신도들의 동참에 다채롭게 열린 화성사 ‘문화예술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상원초4이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후 2시, 다도회 선향의 육법공양팀이 공연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6명의 보살들이 꽃,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정대하고 부처님 전

풍물패 등장...곳곳 환호성 차담 나누니 분위기 더 다정

으로 사뿐히 걸어나간다. 발걸음이 한없이 경건하다. 매주 금요일이면 다도회원 20여명은 차향을 의미하며 말과 물가짐을 다잡았다. 지난해에는 천태 다도보존연구회가

다도회 지도선생 우숙희(46) 보살은 “다도회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고 큰 도움을 준다”고 다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3회에 법당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 활동 중인 문화 동아리의 실력이 일정 정도로 갖추게 되면 종합문화복지재단을 구성해 인근의 지역 복지관, 양로원, 군부대 등 소외된 곳을 찾아 공연을 통한 문화복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스님은 올해 말까지 어린이 청소년 다도회, 청소년 사물놀이패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계획도 갖고 있다.

요 마을 공부하는데 이만한 것이 있을까요. 남편과의 말싸움도 줄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애깃거리가 생겨서 무엇보다도 기쁘요” 이경희(47) 보살이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잠시 후 환호성이 터진다. 사물놀이패 국봉과 정봉의 공연. 국봉은 성인, 정봉은 어린이 풍물패다. 주지인 시용 스님이 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동아리다. 지난해 5월 이곳 화성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래, 제일 먼저 만는 것도 사물놀이패다.

“덩더쿵 덩더쿵 뚝뚝!” 가락을 맞춰본 지 몇 달이 안 됐어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장단을 알아낸다. 내 소리 네 소리 할 것 없이 한데 어울려간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다.

“주지 스님께서 놀러오라도 절에 와서 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절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신행 생활도 하니 일거양득이예요. 아들하고 함께 사물놀이도 배워서 행복해요. 지훈아 너도 그렇지요? 모자가 두 명 둘과리를 친다는 신미옥(44) 보살과 아들 김지훈(9)·대화초2이 마추 보며 얘기한다. 김금례(46) 지명관(10) 모자도 함께 장구를 친다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낸다. 공연이 끝나자 선향의 다도 시연회가 이어진다. “포르록 포르록” 차랑이 법당을 휘감는다.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 차분함을 더해준다. 잔뜩 들떠 있던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어진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신도들이 차담을 나눈다. 집안일부터 사찰 일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다도회 지도선생 우숙희(46) 보살은 “다도회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고 큰 도움을 준다”고 다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린이와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함께 공연하고 춤추며 우리 문화를 배워가는 화성사. 신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초겨울 날씨를 훈훈하게 녹이고 있었다. 성남=김철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협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열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